

농어촌公 최현수 본부장, 진천군 수위조절 시설 및 건설현장 현장 점검

✎ 성기욱 기자 | ☎ 승인 2025.05.01 11:23



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충북 진천군 광혜저수지 등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.

[충남일보 성기욱 기자]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홍수기를 약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진천군 소재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 작동·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

현장에 방문한 최현수 본부장은 시설관리자 및 시공사 관계자(현장소장)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면서, 시설관리자(진천지사)에게 재해대비 안전취약한 수리시설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물리적·기능적 결함이 발견된 즉시 안전진단 등 신속한 조치를 단순하고 형식적인 안전 활동을 벗어나 시공사 안전활동의 발주자가 적극 지원해 안전 활동의 효율을 기하도록 지시했다.

앞으로 최현수 본부장은 지속적인 안전교육, 불시 현장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재해대비 취약한 수리시설 및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

성기욱 기자 skw9749@naver.com

저작권자 ©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